

허준 편·간의 언해본 의서와 관련 판본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Eonhae Medical Texts Compiled and Published
by Heo Jun and Their Related Editions

강 순 애 (Kang, Soon-Ae)**

◁ 목 차 ▷

- | | |
|--|-----------------------------|
| 1. 서 론 | 5. 언해본과
「동의보감(東醫寶鑑)」의 비교 |
| 2. 내의원과 의서의 편찬·간행 | 6. 언해본의 관련 판본 |
| 3. 「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 및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產集要)」의
편찬·간행 | 7. 언해본의 국어학적 특징 |
| 4. 언해본의 형태와 내용 | 8. 결 론
<참고문헌> |

<초 록>

이 글은 허준 편·간의 언해본 의서와 관련 판본에 관한 연구이다. 내용의 전개는 내의원
과 의서의 편찬·간행, 「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 및 「언해
태산집요(諺解胎產集要)」의 편찬·간행, 언해본의 형태와 내용, 언해본과 「동의보감(東醫寶
鑑)」의 비교, 언해본의 관련 판본, 언해본의 국어학적 특징 등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내의원
이 의서의 편찬과 간행을 주도한 것은 선조 41년(1608)부터 광해군 7년(1615) 사이에 별도로
국을 설치하고 의관들이 의서를 편찬, 교정, 감수하여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언해구급방」은
선조 34년(1601)~선조 40년(1607)에 세조조에 간행된 「구급방」과 「동의보감」 및 여러 의서들
을 참조하여 편·간되었고, 「언해두창집요」는 세조조 임원준이 편찬한 「창진집」을 비롯한
두창관계 의서 및 중국 의서들을 참고하여 이루어졌으며, 「언해태산집요」는 「태산요록」과
「동의보감」 및 부인과 관련 여러 의서를 참고하여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이들
언해본들은 원간본과 번각본이 함께 남아 있어 판본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17세기
근대 국어의 면모가 표기, 음운, 어휘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서지학, 한국학,
한의학분야에 중요한 자료로 구실할 수 있다.

要語: 허준, 내의원, 「언해구급방」, 「언해두창집요」, 「언해태산집요」

* 본 연구는 2011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본 연구는 허준박물관 개관 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허준의 언해본 재조명”이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2011. 3. 23)에서 발표한 「허준 편·간의 언해본 의서와 관련 판본에 관한 연구」
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체계화한 것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1년 5월 7일 최초심사일: 2011년 5월 13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18일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Heo Jun's Eonhae("Korean-translated Version") medical texts and their related editions. The paper will examine the subject in the following order: Naeuiwon(royal clinic in the Joseon Dynasty) and its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medical texts;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Eonhaegoogeupbang*, *Eonhaedoochangjipyo*, and *Eonhaetaesanjipyo*; the form and contents of the Eonhae books; a comparison of the Eonhae books and *Donguibogam*; the editions related to the Eonhae texts; and the Korean language characteristics of the Eonhae texts. Naeuiwon, in charge of compiling and publishing medical texts, established a separate bureau from the 41st year of King Seonjo's reign (1608) to the 7th year of King Gwanghaegun's reign (1615) and published medical books compiled, proofread and supervised by court physicians with wooden movable types. *Eonhaegoogeupbang* was compiled and published from the 34th year of King Sejo's reign(1601) to the 40th year of Seonjo's reign (1607) by referring to *Googeupbang* published during King Sejo's reign, *Donguibogam* and several other medical texts. *Eonhaedoochangjipyo* was made by referring to *Changjinjip* which Im Wonjun compiled during King Sejo's reign, as well as to other smallpox-related medical texts and Chinese medical texts. *Eonhaetaesanjipyo* was published in wooden type by Naeuiwon with reference to *Taesanyorok*, *Donguibogam* and other gynecology-related medical texts. Since both the original editions of the Eonhae texts and their reprints exist, they are extremely valuable in studying the editions, and excellently represents the notation, phonemes, and lexicons of the modern Korean language used in the 17th century. It is certain that they will be considered important resources in the fields of bibliography, Koreanology and Eastern medicine.

Key words: Heo Jun, Naeuiwon, *Eonhaegoogeupbang*, *Eonhaedoochangjipyo*, and *Eonhaetaesanjipyo*

1. 서 론

허준이 편찬 간행한 『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 및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產集要)』는 선조 34년(1601)에 편찬을 시작하여 선조 41년(1608)에 내의원(內醫院)에서 내의원자(內醫院字)¹⁾로 간행한 한글의 서들이다.

위의 의서들은 허준이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편찬 간행하는 중에 이루어졌다. 『언해구급방』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질병의 구급에 필요한 의학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언해두창집요』는 어린이들의 두역(痘疫)에 관한 예방과 치료법을 기재한 것이며, 『언해태산집요』는 부인들의 출산이나 출산 전후의 모든 질병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허준의 언해본들은 어린이와 서민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예방하고, 기존에 편찬된 『태산집(胎產集)』, 『창진집(瘡疹集)』, 『구급방(救急方)』이 임진왜란으로 없어져서 열람할 수 없으므로 왕명에 의해 보급된 의서로서 의학사 및 서지학 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세의서는 내의원에서 간행되어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구급의학, 두창, 산부인과로 각 영역이 매우 달라서 각각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각각의 의서들을 다룬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세 종류의 의서를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논문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내의원과 의서의 간행, 허준과 『언해구급방』, 『언해두창집요』 및 『언해태산집요』의 편찬·간행, 언해본과 『동의보감』의 비교, 언해본의 형태와 내용, 언해본의 관련 판본, 언해본의 국어학적 특징 등의 순으로 살펴서 허준이 내의원에서 편·간한 언해본 의서들을 종합해서 조명하고자 한다.

1) 내의원이 선조 41년(1608)부터 광해군 7년(1615)까지의 사이에 의서를 간행하기위해 사용한 목활자로 이때 쓰인 한자활자를 ‘내의원자(內醫院字)’, 한글활자를 ‘내의원한글자(內醫院한글字)’라 일컫고, 그 활자로 찍은 책을 ‘내의원자본(內醫院字本)’이라 일컫고 있다.

2. 내의원과 의서의 편찬·간행

내의원은 조선시대 왕의 약을 조제하던 관제로 내국(內局), 내약방(內藥房), 약원(藥院) 등으로 불리었다. 태조 원년(1392)에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전의감(典醫監)을 두었다가 후에 이에서 분치하여 내의원을 두어 어약을 담당하도록 하였다.²⁾ 내의원은 세종 25년(1443)에 처음 직제가 마련되어 관원 16명을 두었다.³⁾ 성종 16년(1485)에 경국대전이 편찬되면서 내의원의 관제도 정비되어 정(正) 1명(정삼품), 첨정(僉正) 1명(중사품), 판관(判官) 1명(중오품), 주부(主簿) 1명(중육품), 직장(直長) 3명(중칠품), 봉사(奉事) 2명(중팔품), 부봉사(副奉事) 2명(정구품), 참봉(參奉) 1명(중구품)으로 정원이 12명이었으며,⁴⁾ 이외에 도제조(都提調)(겸관(兼官), 정일품), 제조(提調)(兼官(겸관), 종일품 이하), 부제조(副提調)(승지겸임(承旨兼任)) 각 1명과 별좌(別坐) 12명이 내의원의 업무를 지휘·보좌하도록 하였다. 내의원은 여러 차례 직제의 조정이 있었고, 고종 22년(1885)에 전의사(典醫司), 고종 32년(1895)에 태의원(太醫院), 민족항일기에는 이왕직전 의국(李王職典醫局)으로 불리었다. 내의원은 왕의 약을 조제하는 일 이외에 어가의 수행, 산실청 운영, 숙직, 진어(進御), 별진헌(別進獻), 진상(進上), 대령약물(待令藥物), 납약(納藥), 각도진상(各道進上), 소관공물(所管公物), 총례(總例), 봉용(捧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⁵⁾ 산하 부속기관으로는 시약청(試藥廳), 의약청(醫藥廳), 산실청(產室廳) 등이 있었다.

내의원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의서를 편찬·간행하는 일이었다. 조선전기에는 내의원의 의관들이 편찬을 맡고, 간행은 활자로 하는 경우는 주자소가 담당하고 목판으로 간행하는 경우는 각 지방의 감영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2) 洪奉漢 外, 『增補文獻備考』 職官考9. 內醫院條.

“本朝 太祖元年因麗制置典醫監 後分置內醫院掌和劑御藥 …”

3) 『朝鮮王朝實錄』, 世宗 25年 6月 戊戌. 卷100. 張31b.

“… 吏曹啓 內藥房關係至重 而以藥方稱號 且其官員無名號 有違古制 請稱號內醫院置員十六人 三品則稱提舉 六品以上則稱別坐 參外則稱助教 從之 …”

4) 『經國大典』 卷1. 吏官職 內醫院條.

5) 『六典條例』 卷6. 禮典. 內醫院條.

내의원이 편찬과 간행을 주도한 것은 선조 41년(1608)부터 광해군 7년(1615) 사이에 별도로 국을 설치하고 의관들이 의서를 편찬·교정하고 감수하여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이 활자본에 대하여 우선 허준의 봉명찬을 중심으로 기록과 현존본에 의거하여 살펴보면, 선조 34년(1601)부터 편찬을 시작하여 선조 40년(1607)에 완성을 본 『언해구급방』과 이듬해인 선조 41년(1608)에 완성된 『언해두창집요』와 『언해태산집요』가 있다. 이들 의서는 내의원에서 활자로 찍은 다음 바로 번각하여 널리 퍼냈다. 같은 해 찍은 책에는 광해군조에는 4년(1612)에는 중국의 고양생(高陽生)이 편집한 것을 허준이 교정하여 『찬도방론맥결집성(纂圖方論脈訣集成)』을 간행해냈고, 동왕 5년(1613)에는 『신찬벽은방(新纂辟瘟方)』, 『동의보감』, 『벽역신방(辟疫新方)』이 잇달아 간행되었다.⁶⁾ 이중 『동의보감』은 선조 29년(1596)에는 유의(儒醫)인 정작, 태의(太醫)인 양예수, 김응탁, 이명원, 정예남 등과 함께 내의원에 편집국을 설치하고 『동의보감』을 편집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다음해에 정유재란을 만나 의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편집의 일은 중단되었다. 그 뒤 선조는 다시 허준에게 명하여 단독으로 의서 편집의 일을 맡기고 내장방서(內藏方書) 500권을 내어 고증하게 하였다. 허준은 어의로서 내의원에 근무하면서 편집의 일을 계속하여 광해군 2년(1610) 8월 6일에 완성하였고,⁷⁾ 이듬해(1611) 11월 21일에 내의원에 국을 설치하고 내의원활자로 인쇄하게 하고 의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일일이 교정하도록 하였으며⁸⁾ 광해군 5년(1613)에 25권 25책으로 완성되었다. 이 책은 그 당시의 의학서적을 총망라한 임상의학의 백과전서로서 내경(內景), 외형(外形), 잡병(雜病), 탕액(湯液), 침구(鍼灸) 등의 5편으로 구성되었고, 정조대에 완성된 『제중신편(濟衆新編)』의 편집에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 출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외에도 내의원 간행의 의서는 『식물본초(食物本草)』, 『의림촬요속집(醫林撮要續集)』, 『간이벽온방(簡易辟瘟方)』, 『신간보주석문황제내경소문(新刊補註釋文黃帝內經素問)』,

6) 강순애, “새로 발견된 내의원자본 『언해두창집요』의 연구,” 『書誌學研究』 第19輯(2000. 6), 44.

7) 『朝鮮王朝實錄』 光海君二年 8月 戊寅(6).

8) 『朝鮮王朝實錄』 光海君三年 十一月 丙辰(21).

「신응경(神應經)」, 「신간보주동인수혈침구도경(新刊補註銅人腧穴鍼灸圖經)」, 「납약증치방(臘藥證治方)」 등이 있다.

그런데 이 활자와 관련되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신간보주석문황제내경소문」이 간행되기 바로 전해인 광해군 6년(1614) 12월에 인출 내사된 「사성통해(四聲通解)」는 동일한 활자로 간행되었다. 이 활자를 간행한 곳은 훈련도감이며 그것을 갖다 쓰고 돌려보낸 것으로 여기고 있다. 훈련도감에서 이를 받아 「사성통해」를 찍고, 그 이듬해에 「소문(素問)」이 필요하여 다시 갖다 찍고 돌려보낸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의 모든 의서는 훈련도감에서 간행되어 위의 사실들을 더욱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⁹⁾

여하튼 이는 내의원에서 의서를 간행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내의원자로 잠정적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3. 「언해구급방(諺解救急方)」,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 및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產集要)」의 편찬 · 간행

3.1 「언해구급방」의 편찬 · 간행

「언해구급방」은 세조조에 간행된 「구급방」과 「동의보감」 및 여러 의서들을 참조하고 선조 34년(1601)부터 편집을 시작하여 선조 40년(1607)에 내의원에서 간행한 의서이다. 그중 「구급방」은 조선 세조대에 간행된 2권 2책의 의서로서 초간본은 전하지 않는다. 일본 봉좌문고에 남아있는 원간본의 번각본이 남아 있어 원본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세조 12년(1466) 6월에 각 도에 반사할 때, 백성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문 저술에 언해를 붙여 을해자병용한글자로 찍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구급방」과 「언해구급방」에서 공통으로 다룬 질병은

9) 천혜봉, 「한국목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68.

10) 千惠鳳,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지식산업사, 2003), 166.

28가지이고, 『구급방』에서만 다룬 것이 8가지, 『언해구급방』에서 새로 다룬 것이 31가지였다. 공통질병에서 내용이 비슷한 것은 동일 질병에 대하여 같은 처방을 하였고, 증세를 보이는 당시의 상황이나 증상 설명이 구체적이고 다양하였으며, 일반적인 약제 복용치료법 외에 도포법 처방이 활성화 되어 있었고, 원시적인 처방도 일부분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었다¹¹⁾ 라고 한 것으로 보아 『구급방』이 『언해구급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해구급방』은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집하는 중에 잠시 중단하고 편찬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컸다. 그 이유는 첫째,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기근과 전염병이 난무하여 사상자가 생기고, 선조 35년(1602)에는 함경도와 전라도에 여역(癘疫)이 돌아 선조 37년(1604)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와중에 선조 36년(1603)에 왕세자 제2남과 왕녀가 두역으로 죽게 되고 선조 37년(1604)에는 왕까지 병환으로 눕게 되자,¹²⁾ 구료의원을 전국적으로 파견하여 치료를 해야만 했다. 둘째,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많은 서적들이 소실되어 백성들이 의서를 참고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의원이 부족하고 더욱이 의서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처방과 응급치료법을 정리하고 한글로 해석하여 배포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 책의 특징은 『동의보감』의 영향을 받아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질병을 다루었고, 전염병 관련 내용이 다른 구급의서에 비해 많다. 또한 일반인을 위한 구급의서로 언해를 통해 의학의 저변확대를 하였고, 인용문헌이 없고 탕제나 산제명 등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다.¹³⁾

이 책의 간행에 대해서는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된 전사본의 권말을 참조하면, ‘萬曆三十五年 六月日 內醫院開刊傳書’ 이어 관계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도제조인 ‘大匡輔國崇錄大夫議政府領議政 柳永慶’, 제조인 ‘資憲大夫吏曹判書 崔天健’, 부제조인 ‘嘉義大夫行承政院都承旨인 權禧’, 감교관인 이각(李 恪)과 신득일(申得一)이 실려 있다. 권말의 내용을 보면, 선조 40년(1607)에 도제조, 제조,

11) 崔美姪, “조선시대 『救急方』과 『諺解救急方』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60.

12) 金重權, “『諺解救急方』의 書誌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제10집(1994), 672-673.

13) 崔美姪, “조선시대 『救急方』과 『諺解救急方』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15-16.

부제조의 관할하에 내의원의 감교관인 이각과 신득일이 감교하여 내의원목활자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2 「언해두창집요」의 편찬·간행

「언해두창집요」는 세조조 임원준(任元濬)이 편찬한 「창진집(瘡疹集)」을 비롯한 두창관계 의서 및 중국의서들을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그중 「창진집」은 세종이 내의원에서 모든 처방집을 수집하는 가운데 창진에 관한 것만을 따로 묶어 증외에 인반하였으며, 세조는 임원준, 이극감(李克堪)에게 다시 산정(刪定)하도록 하여 세조 2년(1456) 4월에 간행하였다.¹⁴⁾ 세조 8년(1462) 2월 14일에는 의서 습독(醫書習讀) 과목의 하나로 채택되었고,¹⁵⁾ 성종 2년(1471) 5월 25일에는 예조에서 올린 단자 중에 의원들의 춘등(春等), 고강(考講), 취재(取才) 과목에 포함되었다.¹⁶⁾ 중종 13년(1518) 4월 1일에는 김안국의 건의로 「벽온방(辟瘟方)」, 「창진방(瘡疹方)」 등의 의서를 언해하여 보급한 것으로 여겨지는데,¹⁷⁾ 「창진방」이 곧 「창진집」을 일컫는 것으로 보는 의견들이 있다.¹⁸⁾ 이 책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가장 많이 활용된 두창관계 서적인데, 미끼 사가에(三木榮)의 「조선의서지(朝鮮醫書誌)」에는 두창에 관한 이론, 예방 및 치료, 금기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었고,¹⁹⁾ 최근에 박사 이우성 교수가 중국 절강성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4) 「瘡疹集」 卷上. 任元濬瘡疹集序(世祖2, 1456).

“恭惟我世宗大王 以天縱之聖 好生之德 合乎天地 嘗命內醫 搜摭諸方 凡屬瘡疹者 合爲一帙 名曰瘡疹集 印頒中外 … 顧其書猶頗闕誤 我殿下(世祖) 特留宸慮 清讌之間 取閱此書而病其未備 遂 命臣元濬 及吏曹參議臣李克堪 俾之刪定 遇有難會 略爲附註 始自發生 至于減癘 凡爲劑有九 爲卷三 方論藥證 無不具載 而其規模節目 悉稟睿裁.”

15) 「朝鮮王朝實錄」 世祖八年 二月 己卯(14일).

16) 「朝鮮王朝實錄」 成宗二年 五月 丁酉(25일).

17) 「朝鮮王朝實錄」 中宗十三年 四月 己巳(1일).

18) 김성수, “朝鮮前期 痘瘡 流行과 「瘡疹集」,” 「韓國韓醫學研究所論文集」 第16卷 1號(2010), 35.

19) 三木榮, 「朝鮮醫書誌」, 56-57.

제1책: 總目·目錄 卷上- 諸家論(聖惠方論·和劑指南論·錢氏小兒藥証直訣論·直指方論·三因方論·朱氏集驗方論·無求子活人書論·張子和方論·東垣試效方論·澹寮方論·拔萃方論·聖濟總錄論·陳氏小兒痘疹方論·省翁活幼口議論·永類鈴方論·醫

것을 복사해 들여와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함으로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²⁰⁾ 이 책은 을해자훈입목활자본으로 명종-선조연간에 인출한 책으로 여겨진다.

선조조에는 임진왜란으로 「창진집」이 전해지지 않고, 선조 23년(1590) 겨울에 왕자가 두창에 걸려 허준이 시약하여 낳았고, 선조 34년(1601)에는 다시 왕자와 왕녀가 두창에 걸려 다시 약을 사용하여 낳았다. 이에 선조의 명으로 전후 없어진 「태산집」, 「창진집」, 「구급방」을 참조 보찬하고 언해를 하게 하여 선조 35년(1602)년에 편찬을 마쳤다. 선조 34년(1601) 8월에 허준이 발문을 쓰고 선조 41년(1608) 이희헌(李希憲)과 이각(李 彥)의 감독하에 내의원에서 간행되었다.²¹⁾ 이 희헌은 선조 33년(1591) 경자식년(庚子式年)에 합격하고, 「언해두창집요」, 「찬도 방론맥결집성」, 「신찬벽온방」, 「동의보감」, 「벽온신방」의 편찬에 관여하였다. 이 각은 선조 41년(1608) 정월에 「언해두창집요」를 인출감독하고, 이어 「의림촬요 속집」을 간행한 1개월 후인 10월에 인출감역의 공로로 동반에 서용되고, 이희헌, 신득일은 본아문의 정직에 제수되었다.²²⁾ 이 책은 허준이 선조 35년(1602)에 편찬을 마치고, 6년 후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허준이 간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李希憲과 李 彥의 감독하에 인출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²³⁾

林方論・經驗良方論・施圓丹效方論・瘡疹方論・玉機微義論)

제2책: 卷中- 豫防之劑・發出之劑・和解之劑・救陷之劑・消毒之劑・護眼之劑

제3책: 卷下- 催乾之劑・減癰之劑・通治之劑・禁忌

20) 「栖碧外史海外蒐佚本-瘡疹集」(亞細亞文化社, 1997).

21) 「診解痘瘡集要」卷末 許浚跋文.

“祖宗朝 雖有瘡疹集 刊行于世 民不屑焉 殆虛文耳 昔歲王子染痘 證勢不順而拘於俗忌 未敢下藥 醫官之輩 袖手待盡 自上痛念 非命悔不用藥 歲在庚寅(선조 23, 1590)之冬 王子又染此疾 … 臣仰稟聖旨 俯索靈丹 幾乎奄忽 三投藥而三起之…厥後王子王女染痘 俱用藥獲安 閭閻之全活者 莫知其下教于臣曰 平時有胎產集瘡疹集救急方 刊行于世 亂後皆無矣爾 宜搜撫醫方 以成三書 命祗慄夙夜靡遑 纔閱世而三書告畢役進之日 又爲下教曰 近歲痘疫未熄 痘瘡集要爲最切爾 略記其創藥之由 以跋其尾 …辛丑(선조34, 1601)八月 日 許浚識 萬曆三十六年正月日內醫院開刊…李希憲李 彥.”

22) 「朝鮮王朝實錄」光海君卽位年 十月 庚辰.

“醫書印出監役官 李 彥 東班徐用 申得一李希憲 本衙門正職除授.”

23) 강순애, “새로 발견된 내의원자본 「언해두창집요」의 연구,” 「書誌學研究」 第19輯(2000. 6), 47-48.

3.3 「언해태산집요」의 편찬 · 간행

「언해태산집요」는 노중례(盧重禮)가 편찬한 한문본 「태산요록(胎產要錄)」과 「동의보감」 및 부인과 관련의 여러 의서들을 참고하여 선조 34년(1601)부터 편집을 시작하여 선조 41년(1608)에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의서이다. 그중 「태산요록」은 세종 16년(1434) 3월에 판전의감사 노중례가 편찬한 부인과 전문의서로 상·하 2권1책으로 되어 있다. 상권에는 포태(胞胎)시의 교양법을 논하고 하권에는 영아의 보호와 양육법을 실어 주자소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전문적인 의학 내용이라기보다는 산모나 그의 가족과 이웃이 알아야 할 지식과 실천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위주로 하고 있다. 「태산요록」과 「언해태산집요」와의 관련성을 보면, 「태산요록」의 목록 49개 항목 중에서 「언해태산집요」와 관련이 있는 것은 모두 13개이고 그중에서 항목 명칭이 일치하는 것은 3개에 불과하다. 또한 원문내용도 49개의 항목 중에서 일치를 보이는 것은 3개밖에 나타나지 않으며 부분일치를 보이는 것은 13개의 항목에 불과하였다.²⁴⁾ 따라서 「태산요록」이 「언해태산집요」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편찬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동의보감」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언해본을 급히 만들어서 배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집필되어 있던 부분을 손질하고 민간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언해한 요약 정리본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처방부분에서는 동일한 증세에 동일한 인용서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 처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겨우는 허준의 의학관에 따른 의서들의 재해석의 일면인 측면도 있었다.²⁵⁾

이 책의 간행은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보물 1088호인 원간본의 권말에는 「萬曆三十六年 正月日 內醫院開刊」의 간기에 이어 감고관인 의희헌(李希憲)과 이각(李 恪)의 명단이 실려 있다. 이를 참조하면, 내의원이 선조 41년

24) 최미현, “「胎產要錄」과 「諺解胎產集要」의 관련성 고찰,” 『한말연구』 제26호(2010), 260-261.

25) 鄭珉雅, “許浚의 「諺解胎產集要」에 對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2003), 22.

(1608)에 이희현과 이각이 감교하도록 하여 내의원자로 간행한 것이다.

4. 언해본의 형태와 내용

4.1 「언해구급방」의 형태 및 내용

이 책의 원본인 내의원자본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데, 책 앞 목록은 1장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소실되었다. 본문은 47장으로 온전하고, 하권은 책의 앞뒤에 낙장이 있어 9장 뒷면부터 46장 뒷면까지 남아 있다. 책의 판식은 사주쌍변반곽 25.1×17.4cm, 유계, 반엽 25.1×17.4cm, 상하내향3엽화문어미, 책의 크기 31.8×21.2cm 이다(<그림 1>²⁶⁾ 참조).

이 책은 크게 상하 2권이다. 권상에는 중풍(中風), 파상풍(破傷風), 중한(中寒), 음양역(陰陽易), 중서(中暑), 기결(氣厥), 담결(痰厥), 식결(食厥), 시결(尸厥), 졸사(卒死), 중악(中惡), 귀염(鬼魘), 사수(邪祟), 진광(癲狂), 상기(上氣), 두통(頭痛), 심통(心痛), 복통(腹痛), 산통(疝痛), 광란(霍亂), 후폐(喉閉), 설종(舌腫), 제골경(諸骨鯁), 오탄금철(誤吞金鐵), 제충오탄(諸蟲誤吞), 비사입구안(飛絲入口眼), 매목(昧目), 실음(失音), 해역(咳逆), 토혈(吐血), 육혈(衄血), 구구출혈(九竅出血), 안정돌출(眼睛突出), 실흠탈함(失欠脫頤), 대편불통(大便不通), 소편불통(小便不通), 입정총졸사(入井塚卒死), 자액사(自縊死), 익수사(溺水死), 동사(凍死), 기사(饑死)의 41항목의 내용이 실려 있고, 권하에는 제수상(諸獸傷), 광견상(狂犬傷), 제충상(諸蟲傷), 제충입칠구(諸蟲入七竅), 금창상(金瘡傷), 타박상(打撲傷), 타압상(墮壓傷), 근단골절상(筋斷骨折傷), 제자상(諸刺傷), 탕화상(湯火傷), 음식독(飲食毒), 제약독(諸藥毒), 제육독(諸肉毒), 제어독(諸魚毒), 제과독(諸果毒), 제채독(諸菜毒), 충독(蟲毒), 역려(疫癘), 대두온(大頭瘟), 웅저

26) 김남경, “구급방류 언해서의 국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05), 41에서 인용함.

(癰疽), 대풍창(大風瘡), 천포창(天疱瘡), 음식창(陰蝕瘡), 연훈독(烟熏毒), 난산(難產), 포의불하(胞衣不下), 급만경풍(急慢驚風), 두창흑함(痘瘡黑陷), 제혈론(諸穴論), 속방약(俗方藥), 학질약(瘡疾藥), 상식상기(常食相忌), 약주방문(藥酒方文)의 33항목의 내용이 실려 있다.²⁷⁾

이 책은 일상생활의 모든 병들에 대한 증상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고, 일반백성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방약 침구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는 인용출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동의보감」을 참조하여 보면 「의감(醫鑑)」, 「득효방(得效方)」, 「직지방(直指方)」, 「단심(丹心)」, 「강목(綱目)」, 「의학입문(醫學入門)」, 「삼인방(三因方)」, 「경험방(經驗方)」, 「본초(本草)」, 「활인방(活人方)」, 「천금방(千金方)」, 「유취(類聚)」, 「회춘(回春)」, 「종행(種杏)」, 「동원(東垣)」, 「속방(俗方)」, 「내경(內經)」, 「중경(仲經)」, 「정전(正傳)」, 「정의(精義)」, 「자생방(資生方)」, 「양방(良方)」, 「산서(產書)」 등이 인용되었다. 인용된 의서는 거의 중국의 서들이고, 한국의서는 「유취(類聚)」와 「산서(產書)」의 2종이다. 시대별로는 한당의 의서가 4종, 송원이전의 의서가 8종, 명초의 의서가 9종, 조선시대 선조이전의 의서가 2종, 기타 민간속방 의서가 1종으로 밝혀졌다.²⁸⁾

4.2 「언해두창집요」의 형태 및 내용

가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언해두창집요」는 내의원목활자로 찍은 2권2책의 완질본이다. 권말에 붙어있는 발문 중에 한 장이 결락되어 보사되어 있을 뿐이다. 사주쌍변 반곽 25.0×17.4cm, 유계, 반엽 11행20자, 상하내향3엽화문어미, 전체 길이 32.5×21.5cm이다. 권수 앞부분 아래쪽에 습기가 차서 변색된 부위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판의 새김이 좋고 정교한 초판본이다(<그림 2-1>~<그림 2-2> 참조). 뒤쪽에 발문이 있는데 1장을 보사되었다(<그림 2-3>~<그림 2-5> 참조). 모두 완벽한데 앞부분 아래쪽에 습기가 차서 변색된 부위가 있다.

27) 강순애, “새로 발견된 내의원자본 「언해두창집요」의 연구,” 『書誌學研究』 第19輯(2000. 6), 52-53.

28) 金重權, “「諺解救急方」의 書誌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제10집(1994), 678-679.

이 책은 권상에 痘瘡源委(두창원위), 痘癰疹形色(두반진형색), 解毒免痘方(해독면두방), 豫防痘瘡禁方(예방두창금방), 發熱三日(발열삼일), 出痘三日(출두삼일), 起脹三日(기장삼일), 貫膿三日(관농삼일), 收靨三日(수엽삼일), 痘瘡通治(두창통치) 解痘毒(해두독), 辨吉凶證(변길흉증), 辨輕重順逆(변경중순역), 變形色善惡(변형색선악), 辨虛實證(변허실증), 聲音(성음), 腰腹痛(요복통), 嘔吐(구토), 泄瀉(설사)의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고, 권하에는 痰喘(담천), 煩渴(번갈), 腹脹(복장), 自汗(자한), 痒痛(양통), 斑爛(반란), 寒戰(한전), 咬牙(교아), 失血(실혈), 溺澀(요삽), 便秘(변비), 倒靨(도엽), 黑陷(흑함), 護眼(호안), 減癍(멸반), 保護(보호), 飲食(음식), 禁忌(금기), 浴法(욕법), 禳法(양법), 痘後雜病(두후잡병), 痘後腎膜(두후의막), 痘後癰癤(두후옹질), 痘後下痢(두후하리) 등과 부록으로 孕婦痘瘡(임부두창), 附癰疹(부반진)의 내용이 들어 있다.

언해두창집요의 인용서는 「의학입문(醫學入門)」을 비롯하여 37여종의 의서가 인용되고 있는데, 한당 이전의 의서로는 「내경(內經)」, 「천금방(千金方)」, 「당인방(唐人方)」, 「집험방(集驗方)」, 「상한론(傷寒論)」 5종이 각 1회, 송원시대의 의서가 13여종, 명초의 의서가 7종, 조선시대 의서가 1종, 기타 미확인 의서가 12종에 이르고 있다. 인용회수로 보면 宋元代에는 전중양(錢仲陽)의 「소아방(小兒方)」이 27회, 주언수(朱彦修)의 「단계심법(丹溪心法)」이 26회, 위역림(危亦林)의 「득효방(得效方)」이 22회, 진문중(陳文中)의 「활유신서(活幼新書)」가 16회이며, 명초의 의서인 이정(李梴)의 「의학입문(醫學入門)」이 132회, 「고금의감(古今醫鑑)」이 61회, 우박(虞博)의 「의학정전(醫學正傳)」이 36회, 루영(樓英)의 「의학강목(醫學綱目)」 17회, 「만병회춘(萬病回春)」 16회로 밝혀졌다.²⁹⁾

4.3 「언해태산집요」의 형태와 내용

이 책의 원본은 원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보물 1088호로 지정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과 한독의약박물관소장본은

29) 金重權, “診解痘瘡集要的 書誌學的 研究,” 『全南大 社會科學研究』 제5권(1994), 118-119.

같은 책이다. 이들 소장본에는 면지 앞부분에 대사성 김복(金功)에게 내사한 내사가 있고 권수에는 ‘宣賜之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본문은 불분권 1책(91張)이고, 책의 판식은 사주쌍변 반곽 25.2×17.2cm, 유계, 11행 20자, 주쌍행, 상하내향 3엽화문어미, 책의 크기 34.1×22.0cm이다(<그림 3-1>~<그림 3-3>³⁰⁾ 참조).

이 책은 임신에서 해산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병에 치료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중 산전제증(產前諸症)과 산후제증(產後諸症)에 각각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각 항목을 살펴보면, 구사(求嗣), 잉태(孕胎), 태맥(胎脈), 험태(驗胎), 변남여법(辨男女法), 전여위남법(轉女爲男法), 악조(惡阻), 금기(禁忌), 장리(將理), 통치(通治), 안태(安胎), 욕산후(欲產後), 보산(保產), 반산(半產), 찰색험태생사(察色驗胎生死), 하사태(下死胎), 하포의(下胞衣)를 다루었고, 산전제증(產前諸證)에는 자간(子癰), 자번(子煩), 자종(子腫), 자림(子淋), 자리(子痢), 자학(子瘡), 자수(子嗽), 자현(子懸), 감한(感寒), 불어(不語), 아재복중곡(兒在腹中哭), 복중종명(腹中鐘鳴)을 다루었으며, 산후제증(產後諸症)에는 아침통(兒枕痛), 혈훈(血暈), 혈붕(血崩), 녹혈(衄血), 천식(喘息), 해역(咳逆), 불어(不語), 발열(發熱), 유현(乳懸), 음탈(陰脫), 과월불산(過月不產), 하유즙(下乳汁), 임신예비약물(臨產豫備藥物), 침산도법(貼產圖法)을 다루었다. 부록으로는 갓난아기의 여러 가지 병증과 치료법을 다룬 초생소아구급(初生小兒救急)의 항목이 있다.

본서에서 인용된 의서를 보면, 한당 이전의 「소문(素問)」, 「본초경(本草經)」, 「맥경(脈經)」, 「상한론(傷寒論)」, 「산보방(產寶方)」 등 5종, 송원대에는 「성혜방(聖惠方)」, 「화제방(和劑方)」, 「활인서(活人書)」, 「본사방(本事方)」, 「득효방(得效方)」, 「단계방(丹溪方)」 등 14종이 인용되었으며, 명초의 「의학입문(醫學入門)」, 「부인대전(婦人大全)」, 「의학정전(醫學正傳)」 등의 9종, 국내의서로는 「의방유취(醫方類聚)」, 「산서(產書)」 등 2종이 인용되었다. 이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부인대전(婦人大全)」, 「의학입문(醫學入門)」, 「득효방(得效方)」, 「본초경(本草經)」, 「의학정전(醫學正傳)」, 「단계방(丹溪方)」 등이었다.³¹⁾

30) 이 그림들의 출처는 문화재청 문화재검색의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KS_01_02_01&VdkVgwKey=12,10880000,33> 등록사진 참조[2011. 3. 2. 인용].

5. 언해본과 「동의보감(東醫寶鑑)」의 비교

5.1 「언해구급방」과 「동의보감」의 비교

「언해구급방」의 내용은 「동의보감」의 여러 편에 산재되어 있어 비교 평가가 어렵다. 「언해구급방」 권상의 중풍(中風)과 「동의보감」 잡병편(雜病篇) 권2의 풍조(風條)를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표 1> 「언해구급방」 卷上の 中風과 「동의보감」 雜病篇 卷2의 風條 비교

권차 항목	언해구 원본(A)	권차 항목	동의보감 원본(B)	항목 변화
항목1) 卷上 中風	• 卒中風昏門仆曰不省 口眼喎斜 手足不遂 急以手大指甲掐刺人 中即醒	雜病篇, 卷2, 風條, 卒中風救急	• 卒中風昏倒不省 牙噤涎潮 口眼喎 斜 精神恍惚 倉卒之際 以手大指甲 刺人中即省(醫鑑)	B: 내용 보정
항목2) 卷上 中風	• 又用皂角末吹鼻 即提起頭頂髮 候其噴嚏可治 無嚏不可治	雜病篇, 卷2, 風條, 卒中風救急, 取嚏法	• 如未效 用通關散吹鼻 即提起頭頂 髮 候有嚏可治(醫鑑) • 卒中風不省 先以皂角細辛末 或南 星半下末 吹入鼻中 候有嚏可治 無 嚏不可治(直指)	B: 내용 보정
항목3) 卷上 中風	• 口噤則 以烏梅肉和南星細辛末 頻擦牙脣 口自開	雜病篇, 卷2, 風條, 開噤法	• 口噤者 以烏梅肉和南星細辛末 以 頻中指蘸藥擦牙 口自開(直指)	B: 내용 보정
항목4) 卷上 中風	• 口開取竹瀝三合薑汁一合調清 心元一丸或龍腦蘇合元三丸灌 口中即醒	雜病篇, 卷2, 風條, 卒中風救急	• 卒中風不省 通用至寶丹 牛黃清心 元 龍腦蘇合元 牛黃金丹 以竹瀝 薑汁香油重便調和灌下 (俗方)	B: 내용 보정
항목5) 卷上 中風	• 痰壅盛者 口眼喎斜者 不能言者 皆當吐之 輕者 取菰蒂一錢 溫水 調服 重者 取藜蘆五分 入麝香半 錢爲末 薑汁調服 如不吐再服之	雜病篇, 卷2, 風條, 取吐法	• 卒中風 痰壅盛者 口眼喎斜者 不能 言者 皆當用吐法 輕者 用瓜蒂一錢 或稀涎散 或蝦汁 重者一作急 用藜 蘆五分 或三分 加麝香少許爲末 薑 汁調和 灌入鼻內 吐痰出 如口不噤 者 灌入口內 吐痰出一吐不效再吐 之 亦有虛而不可吐者(丹心)	B: 내용 보정

31) 鄭珉雅, “許浚의 「診解胎產集要」에 對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2003), 16-17.

권차 항목	언해구 원본(A)	권차 항목	동의보감 원본(B)	항목 변화
항목6) 卷上 中風	•鍼灸法 合谷人中鍼之 又百會大 頤 風池 肩井 曲池 間使 足三里 各灸七壯	雜病篇, 卷2, 風條. 卒中風救急 鍼灸法	•或急以三稜鍼 刺手十指四角十井 穴 將去惡血 就以氣鍼刺合谷二穴 人中一穴(醫鑑) •凡覺心中憤亂 神思不怡 或手足麻 痺 此將風中藏之候 宜灸百會 風池 大頤 肩井 曲池 間使 三里(資生)	B: 내용 보정
항목7) 卷上 中風	•痰塞不省 聲如曳鉅 藥物不入 氣 海關元穴 灸二三百壯 卽甦	雜病篇, 卷2, 風條. 鍼灸法	•中風痰塞 聲如曳鉅 用藥不下 宜灸 氣膻下氣海關元二三百壯 亦可轉死 迴生 五藏氣絕危證 亦可灸之(綱目)	B: 내용 보정

위의 <표 1>에서는 「언해구급방」 권상의 중풍과 「동의보감」 잡병편 권2의 풍조의 7개 항목을 비교하여본 결과 모두 「동의보감」에서 내용이 보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1, 항목3, 항목4, 항목5, 항목7은 내용이 약간 보정되었지만, 항목2와 항목6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해구급방」 권상의 중풍은 ‘卒中風救急’, ‘開噤法’, ‘取嚏法’, ‘取吐法’, ‘鍼灸法破’, ‘傷風取法’, ‘單方’의 7개 항목만 기재되어 있고, 인용문헌이 없는데다가 내용까지 너무 소략하다. 이에 비해 「동의보감」 잡병편 권2의 풍조(風條)는 ‘中風微漸’, ‘調治預防’, ‘熱生風’, ‘肥人多中風’ 등 61개 항목으로 나누고 그 아래 다시 세부 항목들이 있으며 인용문헌이 제시되어 있고 내용이 매우 상세하다.

둘째, 「언해구급방」의 내용은 「동의보감」 내용에 비해 너무 간략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집되긴 했지만, 체계가 너무 없어서 자세한 병증과 처방 및 치료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불편하게 되어 있다.

셋째, 항목2와 항목6은 「언해구급방」보다는 「동의보감」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항목2의 경우는 “又用皂角末吹鼻 卽提起頭頭髮 候其噴嚏可治 無嚏不可治”이라 하여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동의보감」에서는 ‘醫鑑’과 ‘直指’에서 상세하게 보정되고 있다. 항목6의 경우 「언해구급방」에서는 “鍼灸法 合谷人中鍼之 又百會 大頤 風池 肩井 曲池 間使 足三里 各灸七壯”이라 하여 한 문장으로 보이

지만, 「동의보감」에서는 ‘卒中風救急’ 중의 ‘醫鑑’의 내용과 ‘鍼灸法’ 중 ‘資生’의 내용에 상세하게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5.2 「언해두창집요」와 「동의보감」의 비교³²⁾

「언해두창집요」와 「동의보감」 권4 잡병편 11의 ‘痘癰疹三證專由胎毒’의 일부 10항목을 비교하여 내용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 「언해두창집요」 원본과 「동의보감」 원본의 비교

권차항목	언해두 원본(A)	권차 항목	동의보감 원본(B)	항목 변화
항목1) 卷上 痘瘡源委	•醫學入門曰 太古無痘疹 周末秦初 乃有之	卷4 雜病篇11 痘癰疹三證 專由胎毒	•太古無痘疹 周末秦初 乃有之(入門)	동일
항목2) 痘瘡源委	•醫學正傳曰 諸痛痒瘡瘍 皆屬心火 蓋因太毒 藏於命門 遇少陰少陽司天 君相二火太過 熱毒流行之年 則發作矣	痘癰疹三證 專由胎毒	內經曰 諸痛痒瘡瘍 皆屬心火 蓋因太毒 藏於命門 遇少陰少陽司天 君相二火太過 熱毒流行之年 則發作矣(正傳)	동일
항목3) 痘癰疹 形色	•王好古曰 瘡疹之狀 皆五臟之液 … 皆大血榮於內 所出不多 故瘡疹皆小 •又曰 病水抱膿疱者 涕淚俱少 以液從瘡出故也	痘癰疹三證 專由胎毒		B: 삭제
항목4) 解毒免 痘方	•聖惠方曰 痘疹乃胎毒所致 人生無不患者 自少至老 必生一次 故又名百歲瘡 若欲免之 亦有法	稀痘方		B: 삭제
항목5) 解毒免 痘方	•得效方曰 嬰兒纔生 不出聲時 急用軟帛裹手指 蘸黃連甘草汁 拭去中惡汁 更以熟蜜少許調水 飛朱砂末一字抹入口中 解惡毒 一生免瘡痘之患	稀痘方 服朱砂法	•如米細光明朱砂 水飛爲末 每五分作三次煉蜜調 量兒大小加減 溫水送下 不拘痘出未出 首尾可服 密者可稀 稀者可無 黑陷者可起 痘瘡者可消 但性微寒 不可多服(入門) •一法蜜少許調朱砂末一字用(得效)	B: 내용 대체

32) 「언해두창집요」와 「동의보감」의 비교는 본인이 2000년 6월 書誌學研究 第19輯에 발표한 강순애, “새로 발견된 내의원자본 「언해두창집요」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수정·보완하였다.

권차항목	언해두 원본(A)	권차항목	동의보감 원본(B)	항목변화
항목6) 豫防痘瘡 禁方	• 得效方曰 鄉隣痘瘡盛發 宜用此豫防則不發	痘瘡豫防法	• 每遇冬月溫暖 恐春發痘 預服三豆飲油飲子(入門) • 天行痘疹 鄉隣有此證 預服之 能活血解毒 則不染 宜獨聖丹 免紅丸(二方見上) 龍鳳膏(醫鑑)	B: 내용 대체
항목7) 解毒免 痘方	• 延生第一方 服之終身 永無痘疹及諸疾 十分妙法 • 小兒初生 臍帶脫落 取置新瓦上 炭火燒存 性研爲末 若有五分重入水飛 朱砂末二分半 以生地黃當歸身濃煎汁一蜆殼調和 抹兒口上及乳母乳頭上 令兒嚥下 次日大便下穢惡之物是效(古今醫鑑)	稀痘方 延生第一方	• 小兒初生 臍帶脫落 後取置新瓦上 用炭火四圍 燒至煙將盡放 土地上用瓦蓋之類 蓋之存性 研爲末 預將朱砂透明者爲極細末水飛 臍過帶 若有五分重 朱砂用末二分五釐 生地黃當歸身濃煎汁一二蜆殼調和前二味 抹兒上及乳母乳頭上 一日之內用盡 次日大便遺下污穢濁垢之物 終身永無痘疹及諸疾 生一兒得一子 十分妙法野(醫鑑)	B: 내용 보정
항목8) 解毒免 痘方	• 梅花丸服之 可免出痘 • 十二月收梅花 陰幹爲末 煉蜜和丸 櫻桃大 好酒化下一丸(種杏仙方)	稀痘方 服梅花方	• 服梅花可免出痘 十二月收梅花 不拘多少 陰幹爲末 煉蜜丸 芡實大 梅一丸 好酒化下 念太乙求苦天尊一百遍 妙不可言(種杏)	B: 내용 보정
항목9) 解毒免 痘方		稀痘方 百壽散	• 初生月內用之 老無瘡疹 黃連一兩朱砂一錢 右水煎 先拭去口中涎淨 灌下少許令嚥之 却以餘藥傾盆中 浴兒身令遍(海藏)	B: 추가
항목10) 豫防痘瘡 禁方	• 獨聖丹小兒服此 則出痘必少 或只熟蒸三兩日 今不出痘 絲瓜老者近代取三寸 盛砂瓶內固濟 桑柴火燒存性爲末 如數配入砂糖携成餅 時時與兒吃盡 爲妙 一方絲瓜燒灰末 水飛朱砂末等分 每取五分或一錢 砂糖水下化下 可稀痘(古今醫鑑)	稀痘方 獨聖丹	• 絲瓜近代取三寸連皮子 納於固濟砂瓶內 以桑柴火燒存性爲末 以如數配入砂糖携成餅 時時與兒吃盡爲佳 小兒痘疹服此 則少或全然只熟蒸三兩日不出者 或遇作熱時即 與食之 出痘必少(醫鑑) • 凡痘疹初出或未出時 服此藥 則多者可少 少者可無 重者可令輕也 又云入朱砂少許尤妙(正傳)	B: 내용 보정, 추가

<표 2>에서 대비된 바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언해두창집요」와 「동의보감」 권4 잡병편 11의 「痘癰疹三證專由胎毒」의 일부 10항목을 비교해본 결과 동일하게 처리된 경우가 2건, 내용의 삭제가 2건, 내용의 대체가 2건, 내용의 보정이 2건, 내용의 추가 1건, 내용의 보정·추가 1건이다.

첫째, 내용이 동일하게 처리된 경우를 보면 항목1, 2이다. 권상의 「痘瘡源委」와 「痘癰疹形色」이 「동의보감」 권4 잡병편 권11 「痘癰疹三證專由胎毒」에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는 다른데, 예를 들어 항목1의 경우

『언해두창집요』 권상 痘瘡源委에서는 ‘醫學入門曰’하고 시작하면서 의서의 완전서명을 제시하는데 비해, 『동의보감』에서는 문장 끝에 ‘入門’으로 처리하여 약서명으로 처리하고 있고, 항목2는 ‘醫學正傳’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내용이 ‘內徑’에 의해 인용된 것이고 출전이 ‘醫學正傳’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내용의 삭제가 이루어진 것은 항목3과 항목4이다. 항목3은 ‘痘癰疹形色’ 중 ‘王好古’에서 인용된 내용을 삭제하였고, 항목4는 ‘解毒免痘方’ 중 ‘聖惠方’에서 인용된 내용이 삭제되었다.

셋째, 내용의 대체는 항목5와 항목6이다. 항목5는 ‘得效方’의 내용을 ‘醫學入門’에 의해 대체하고, 항목6은 득효방의 내용을 ‘醫學入門’과 ‘古今醫鑑’에 의해 대체하고 있다.

넷째, 내용의 보정이 1건으로 항목8이다. ‘種杏仙方’의 내용이 『언해두창집요』 보다는 『동의보감』에서 구체적으로 보정되어 있다.

다섯째, 내용의 추가를 보면 1건으로 항목9이다. 항목9의 경우에는 ‘海藏’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海藏’은 『탕액본초(湯液本草)』의 저자인 王好古의 호이다.

여섯째, 내용보정과 추가가 이루어진 것은 항목10의 경우인데, ‘古今醫鑑’의 내용을 보정하고, ‘醫學正傳’의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동의보감』 편성 시에 동일하게 처리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추가, 보정, 대체, 삭제, 보정추가 등의 작업에 의해 대대적인 편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3 『언해태산집요』와 『동의보감』의 비교

『언해태산집요』와 『동의보감』의 원문 대조 연구는 이루어진바 있지만,³³⁾ 이 글에서는 『언해태산집요』와 『동의보감』 권4 잡병편 10의 부인조(婦人條)의 일부

33) 최미현, “『診解胎產集要』와 『東醫寶鑑』의 원문 대조 연구(1),” 『우리말연구』 25집(2009. 10), 283-322.

8항목을 비교하여 내용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 「언해태산집요」 원본과 「동의보감」 원본의 비교

권차항목	언해태 원본(A)	권차 항목	동의보감 원본(B)	항목 변화
항목1) 求嗣	• 醫學入門曰 男子精冷 婦人血衰 皆不成胎	雜病篇, 卷10, 婦人條, 求嗣	• 男子陽脫痿弱 精冷而薄 宜固本健陽丹 續嗣丹 溫腎丸 五子衍宗丸(醫學入門) • 婦人陰血衰弱 雖投眞精 不能攝入子 宮 雖交不孕 雖孕不育 是以男女配合 必當其年(醫學入門)	B: 내용 보정
항목2) 求嗣	• 脈經曰 男子脈微弱而澁爲無子 精氣清冷也(宜固本健陽丹 五子 衍宗丸)	雜病篇, 卷10, 婦人條, 求嗣	• 脈經曰 男子脈微弱而澁爲無子 精氣 清冷也 宜陽起石元(脈經) • 男子陽脫痿弱 精冷而薄 宜固本健陽丹 續嗣丹 溫腎丸 五子衍宗丸(醫學入門)	B: 내용 보정
항목3) 求嗣	• 朱彥脩曰 求子之法 莫先調經 凡 婦人無子者 其經必或前或後 或 多或少 或紫或黑 或淡或凝而不 調 如此則必不能成孕(宜溫經湯 調經種玉湯 女金丹 百子建中丸)	雜病篇, 卷10, 婦人條, 求嗣	• 生人之道 始於求子 莫先調經 每見婦 人無子者 其經必或前或後 或多或少 或將行作痛 或紫或黑 或淡或凝而不 調 不調則血氣乘爭 不能成孕(丹心)	A: 내용 보정
항목4) 辨男女法	• 脈經曰 婦人有孕 令人摸之 如 覆盂者則 如男也 如肘頸參差起 者女也	雜病篇, 卷10, 婦人條, 辨男 女法	• 婦人有孕 令人摸之 如覆盂者則 如男 也 如肘頸參差起者女也(脈經)	AB: 내용 일치
항목5) 辨男女法	• 又曰 遣妊婦面南行 還復呼之 左回首者是男 右回首者是女	雜病篇, 卷10, 婦人條, 辨男女法	• 遣孕婦面南行 還復呼之 左回首者是 男 右回首者是女(脈經)	AB: 내용 일치
항목6) 辨男女法	• 又曰 看妊婦上閤時 夫從後急呼 之 左回首者是男 右回首者是女	雜病篇, 卷10, 婦人條, 辨男女法	• 看妊婦上閤時 夫從後急呼之 左回首 者是男 右回首者是女(脈經)	AB: 내용 일치
항목7) 辨男女法	• 又曰 孕婦尺脈 左偏大爲男 右 偏大爲女	雜病篇, 卷10, 婦人條, 脈法	• 尺脈 左偏大爲男 右偏大爲女 左右具 大產二子(脈經)	B: 내용 보정
항목8) 辨男女法	• 古今醫鑑曰 婦人有孕 左乳房有 核是男 右乳房有 核是女	雜病篇, 卷10, 婦人條, 辨男女法	• 婦人有孕 左乳房有 核是男 右乳房有 核是女也(醫鑑)	AB: 내용 일치

위의 <표 3>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언해태산집요」와 「동의보감」 권4 잡병편 10의 ‘求嗣’ 항목과 ‘辨男女法’의 8항목을 비교해본 결과 내용의 보정이 4항목, 내용일치가 4항목이다.

첫째, 내용의 보정이 이루어진 것은 4항목이다. 항목1, 항목2, 항목3은 ‘求嗣’에 관한 것이고, 항목7은 ‘辨男女法’에 관한 것이다. 항목1은 『언해태산집요』의 내용이 ‘醫學入門曰’이라고 시작하지만, 『동의보감』의 내용에서 핵심단어를 뽑은 것에 불과하고, 『동의보감』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보정되어 있다. 항목2는 『언해태산집요』의 내용은 본문은 ‘脈經’에 의거하고, 주석으로 처리한 약제는 ‘醫學入門’의 내용에 의거하고 있다. 『동의보감』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보정되어 있다. 항목3은 『언해태산집요』의 내용이 ‘丹心’에 의거하고, 약제는 『동의보감』에서 열거하고 있는 약제 중에 일부를 주석으로 처리하여 보정하고 있다.

둘째, 내용이 일치되는 것은 항목4, 항목5, 항목6, 항목8이다. 항목4와 항목8은 인용문헌의 위치가 다를 뿐 내용이 같다. 항목5는 『언해태산집요』의 ‘妊婦’와 『동의보감』의 ‘孕婦’ 다른 것을 빼고는 내용이 같다. 항목6은 『언해태산집요』에서 ‘脈經’의 인용이 반복되므로 ‘又曰’이라고 한 것을 빼고는 내용이 같다.

6. 언해본의 관련 판본

6.1 「언해구급방」의 관련 판본

「언해구급방」의 판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본은 선조 40년(1607)에 내의원에서 내의원자로 간행되었는데, 원본은 개인소장본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⁴⁾ 이후의 번각본은 일본 봉좌문고에 소장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봉좌문고 소장본은 「언해구급방」이 아니고, 중종-명종연간에 을해자번각본으로 찍은 「구급방언해(救急方諺解)」상·하 2책이다. 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가람문고(가람고 귀615.135 -G939-v.1)본도 「구급방언해」인데, 이 책은 제1장부터 제4장까지 결락되고 제5장을 보사한 권상 영본(零本) 1책이다.³⁵⁾ 「언해구급방」의 전사본은

34) 김남경, “구급방류언해서의 국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5), 38.

고(故) 김두중(金斗鐘) 박사가 소장하고 있다가 한독의약박물관에 기증되었으며, 여강출판사가 1994년에 영인하여 『한국의학대계』 1집에 실었다. 이 전사본은 표제명이 「구급방(救急方)」이라 되어 있고, 판의 형식은 사주쌍변, 유계 10행 20자, 무어미, 책의 크기 17.5×23.0cm이다. 권말에는 「萬曆三十五年 六月日 內醫院 開刊傳書」라 되어 있어 이 책이 전사본임을 알게 해 준다. 이어 관계자들인 유영경(柳永慶), 최천건(崔天健), 권희(權禧), 이각(李各) 및 신득일(申得一)의 명단이 들어 있다. 원문이 끝나고 부록으로는 「俗方藥」, 「瘡疾藥」, 「編泉神方」 등이 들어 있는데, 이는 「언해구급방」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을 더 베껴놓은 것으로 보인다(<그림 4-1>, <그림 4-2> 참조).

6.2 「언해두창집요」의 관련 판본

「언해두창집요」의 판본은 가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원간본 외에 번각본으로는 규장각, 연세대, 이화여대, 성암고서박물관, 산기문고, 한독의학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언해두창집요」는 4종류였다. 우선 가람고귀615.135-H41e-v.00은 내의원활자본으로 간행한 후 바로 번각한 목판본으로 여겨진다. 권말에는 발문과 인출기가 빠져 있다. 일사고 615.135-H41du-v1-2(288009)와 c.2(288010)과 c.2(288011)은 3종류가 한 청구기호로 처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들은 인출시기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288009는 2권1책으로 후대의 번각본으로 보인다. 후대의 목판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완벽하게 남아 있어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하였고, 여강출판사가 한국의학대계 37에 편입하였다(<그림 5-1>~<그림 5-4> 참조). 288010은 하권만 남아 있는데, 권말에 발문과 간기가 들어 있다. 간행의 상태가 열악하고 종이의 질로 보아 후대의 번각후쇄본으로 보인다. 표제지면에 이종대(李鍾大)가 가지고 온 것이라는 전지의 목서가 붙어 있다. 288011은 역시 하권만 남아 있는데, 발문과 간기는 없다. 이 책은 288009와

35) 천혜봉,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지식산업사, 2006), 165-167.

같은 시기에 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번각본이다.

연세대소장본 1486(619.69/4)은 상하 2책이며, 이도 역시 번각본이다(<그림 6> 참조). 원래의 책주는 나주박씨(羅州朴氏)였던 것으로 목서지기에 의해 알 수 있다. 책의 보관상태는 상권은 가장자리가 헐어서 부분적인 손상이 있으며, 하권은 비교적 깨끗하지만 판각은 서울대 소장본(288009)과 거의 비슷한 시기로 보인다. 이화여대소장본은 권상만이 남아 있으며, 후대의 번각본이며 인쇄상태가 부분적으로 양호하지 않다. 목차의 일부가 없으며 뒷부분도 낙장이 있다. 현재의 상태도 좋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그림 7> 참조).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목판본 역시 번각본으로 상권 1책만 남아 있으며(성암고서목록 p.290), 판식은 사주단변 반곽 23.1×17.2cm. 유계, 반엽 11행20자 주쌍행, 상하내향2엽화문어미이고 책의 크기는 30.5×21.9cm이다.

산기문고 소장의 목판본은 상권1책이 남아 있고, 한독의학박물관에는 상권1책만을 소장하고 있는데, 후대의 번각본으로 상태가 좋지 않고 앞뒤로 일부의 탈락이 있다(<그림 8> 참조).

6.3 『언해태산집요』의 관련판본

『언해태산집요』의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한독의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 제 1088호의 원간본외에 번각본으로는 규장각본과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소장본이 있으며, 필사본으로 규장각 소장본이 있다.

규장각본(181)은 불분권 1책(81장)의 목판본인데, 목활자본을 바로 번각한 것으로 번각본중에 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다. 판의 형식은 사주쌍변, 반곽 24.7×17.2cm, 유계, 11행 20자 판심 상하내향3엽화문어미이며 책의 전체크기는 36.9×23.2cm이다. 목활자본을 바로 번각한 것이어서 새김이 날카롭지만 깨끗하고 권말에는 원간본의 간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그림 9-1>, <그림 9-2> 참조).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소장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M)古4-1-263)으로 열람할 수 있다. 판식은 사주쌍변, 유계, 11행20자, 주쌍행, 상하3엽화문어미이다. 규장각

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번각한 것으로 판각상태가 매우 좋고 깨끗하다(<그림 10-1>, <그림 10-2> 참조).

규장각의 필사본(가람 古 615.135-H41e)은 『언해태산집요』의 원간본을 저본으로 하여 전사한 것이다. 판식도 내용도 같고 간기까지도 그대로 전사하여 원간본과 비교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그림 11-1>, <그림 11-2> 참조).

7. 언해본의 국어학적 특징

이들 언해본 의서는 17세기 초에서 19세기말까지 근대국어 자료로서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으로 근대국어의 면모가 표기, 음운, 어휘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들 자료를 대상으로 한 국어학분야의 연구들은 채인숙,³⁶⁾ 윤혜정,³⁷⁾ 김남경³⁸⁾ 등이 있다. 이들 연구를 참고하여 그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기에 있어서, 음절말 자음, 음절말 자음군, ‘ㅇ’과 ‘ㅁ’의 표기에서 그 특성이 보이고, 음운에서는 어두자음군의 변화, 구개음화, ‘ㅅ’이 소실되어 ‘ㅇ’으로 대체되는 특성을 보이며, 어휘에서는 향약명의 고유어들이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7.1 표기

표기에 있어서, 음절말 자음, 음절말 자음군, ‘ㅇ’과 ‘ㅁ’의 표기에서 그 특성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절말 자음에서는 ‘ㄷ’이 ‘ㅅ’으로 대체되어 혼용되는 것으로 보이거나 대체로 ‘ㄷ’의 표기가 유지되고 있다.

36) 채인숙, “17세기 의서언해의 국어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6).

37) 윤혜정, “諺解救急方の 국어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38) 김남경, “구급방류언해서의 국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5).

예) 닛미음(齒齕) (『언해태산집요』)
콘물/ 핀줄 (『언해두창집요』 상), 콧말리(鼻) (『언해두창집요』 하)

둘째, 음절말의 ‘ㅅ, ㅊ’이 ‘ㄴ, ㅍ’ 등의 앞에서 자음동화가 반영된 ‘ㄴ’으로 표기되었다.

예) 인느니라 (『언해두창집요』 상)
넌무우/ 낸물(流水)/ 근느니라 (『언해두창집요』 하)

셋째, 음절말 자음군에서는 ‘ㄹㄱ, ㄹㅍ, ㄴㅅ, ㅂㅅ’은 체언이나 용언에서 제대로 표기되었으나, ‘ㄹㅎ’은 말음의 용언 ‘알-’은 동작동사의 경우 ‘ㄹㅎ’이 유지되기도 하고 탈락되기도 하였다.

예) ㄹㄱ: 흙을 써 (『언해두창집요』 하)
ㄹㅍ: 끓기며 (『언해두창집요』 하)
ㄴㅅ: 안즈여 (『언해태산집요』)
ㅂㅅ: 업스니라 (『언해태산집요』)
알ㅎ: 알ㅎ는데 (『언해두창집요』 하)

넷째, ‘ㅇ’과 ‘ㅇ’의 표기는 종성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ㅇ’의 사용이 훨씬 많다.

예) 영영히/ 보양ㅎ야 (『언해두창집요』 상)
드령허리(鮮語)/ 녀당 (『언해두창집요』 하)
가장/ 박둥에/ 녀어 (『언해태산집요』)

7.2 음운

음운에서는 어두자음군의 변화, 구개음화, ‘ㅅ’이 소실되어 ‘ㅇ’으로 대체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두자음군의 변화는 17세기에 된소리를 나타내는 ‘ㅃ’계 어두자음군이

나타나고 있다.

예) ‘ㅁ지, ㅁ지, ㅁ지’계: ㅁ터/ ㅁ 줌 (『언해태산집요』), ㅁ (『언해두창집요』 하)
‘ㅁ’계: ㅁ/ ㅁ라 (『언해태산집요』)
‘ㅁ’, ㅁ’계: 손을 ㅁ 띄여/ 즉제 ㅁ차내느니 (『언해태산집요』)

둘째, 구개음화현상이 보이는데, ‘ㅈ’, ‘ㅊ’이 [ts], [tsh]에서 [tʃ], [tʃh]로 변화됨으로 ‘ㅈ ㅈ ㅈ ㅈ’나 ‘ㅊ ㅊ ㅈ ㅈ’ 앞에서 혼동되어 쓰인 예들을 볼 수 있다.³⁹⁾

예) 시절이 더우면/ 물돌 시저리 (『언해두창집요』 상)
어미 절뿌리 우희 불라/ 젓어미도 입을 삼가미 (『언해두창집요』 하)

셋째, ‘ㅅ’이 소실되어 ‘ㅇ’으로 대체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 흰즈익/ 즈익/ 스이 (『언해두창집요』 하)
미양/ 브억/ 니음 (『언해태산집요』)

7.3 어휘

고유어로 쓰이던 한약재 이름이 한자로 대체된 것, 한자어와 고유어가 공존하는 것, 형태가 변하지 않은 것 등이 있다.

첫째, 17세기 이전에 고유어로 쓰이던 한약재 이름이 한자로 대체된 것이 나타나고 있다.

예) 즐불휘(叱之根) → 갈근(葛根) (『언해두창집요』 하)
되팍(狹小豆) → 초결명 → 결명지(決明子) (『언해두창집요』 하)
도랏(刀次) → 길경(桔梗) (『언해두창집요』 하)
아기풀(阿只草) → 원지(遠志) (『언해태산집요』)
뽕이 → 질경이, 뽕이 → 차전죽(車前子) (『언해태산집요』)

39) 채인숙, “17세기 의서언해의 국어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6), 23.

둘째, 한자어와 고유어가 공존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예) 파흰밀(薺白) (『언해태산집요』)

셋째, 17세기 이전과 비교하여 형태가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예) 드렁허리 → 드렁허리, 귀더기 → 귀더기 (『언해두창집요』 하)
기장 → 기장, 부루 → 부루 (『언해태산집요』)

8. 결 론

첫째, 허준이 봉교찬한 언해본의서들은 내의원활자로 인출한 초판본들의 남아 있다. 이들 의서 중 『언해태산집요』만이 보물 제 1088호로 지정되어 있어 『언해구급방』과 『언해두창집요』의 원간본은 보물로 지정될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둘째, 내의원의 의서 중 『언해두창집요』 권말에 붙어 있는 발문에 의해서 『언해구급방』과 『언해태산집요』의 편찬경위를 알 수 있고, 구급, 두창, 태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의학 관계 전문 서적이며 언해본이어서 당시의 한글 연구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언해본과 『동의보감』과의 내용 비교를 하면, 『언해구급방』 내용은 『동의보감』 여러 편에 산재되어 비교 평가 어렵다. 『언해두창집요』와 『언해태산집요』는 『동의보감』 편성 시에 동일하게 처리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의 추가, 보정, 대체, 삭제, 보정추가 등의 작업을 거쳐 편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언해본의 관련 판본들을 보면, 『언해구급방』의 관련 판본은 선조 40년(1607) 내의원에서 내의원자로 간행한 원본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고, 전사본은 金斗鐘 박사가 한독의약박물관에 기증하였으며, 여강출판사가 1994년에 영인하여 『한국의학대계』 1집에 실었다. 『언해두창집요』의 관련 판본은 가천박물관 소장 원간본 외에 번각본이 규장각, 연세대, 이화여대, 성암고서박물관, 산기문고,

한독의약박물관 등 소장되어 있다. 『언해태산집요』의 관련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한독의약박물관 소장된 원간본은 보물 제1088호로 지정되었고, 번각본은 규장각,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소장되어 있으며, 필사본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다섯째, 표기, 음운, 어휘에 있어서 17세기 국어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표기에 있어서는 음절말 자음, 음절말 자음군, ‘ㅇ’과 ‘ㅇ’의 표기에서 그 특성이 보이고, 음운에서는 어두자음군의 변화, 구개음화, ‘ㅅ’이 소실되어 ‘ㅇ’으로 대체되는 특성을 보이며, 어휘에서는 고유어로 쓰이던 한약재 이름이 한자로 대체된 것, 한자어와 고유어가 공존하는 것, 형태가 변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강순애. “새로 발견된 내의원자본 『언해두창집요』의 연구.” 『書誌學研究』 第19輯(2000. 6).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內醫院條.

金重權. “『諺解痘瘡集要』의 書誌學的 研究.” 『全南大 社會科學研究』 제5권(1994).

金重權. “『諺解救急方』의 書誌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제10집(1994).

김남경. “구급방류언해서의 국어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05.

김성수. “朝鮮前期 痘瘡 流行과 『瘡疹集』.” 『韓國韓醫學研究所論文集』 第16卷 1號(2010).

문화재청. <http://www.cha.go.kr/korea/heritage/search/Culresult_Db_View.jsp?mc=KS_01_02_01&VdkVgwKey=12,10880000,33>.

三木榮. 『朝鮮醫書誌』.

『諺解痘瘡集要』 卷末 許浚跋文.

『六典條例』 卷6. 禮典. 內醫院條.

윤혜정. “諺解救急方의 국어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鄭珉雅. “許浚의 『諺解胎產集要』에 對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慶熙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2003.

「朝鮮王朝實錄」光海君卽位年 十月 庚辰.

「朝鮮王朝實錄」光海君三年 十一月 丙辰.

「朝鮮王朝實錄」光海君二年 8月 戊寅.

「朝鮮王朝實錄」成宗二年 五月 丁酉.

「朝鮮王朝實錄」世祖八年 二月 己卯.

「朝鮮王朝實錄」世宗 25年 6月 戊戌.

「朝鮮王朝實錄」中宗十三年 四月 己巳.

채인숙. “17세기 의서언해의 국어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6.

千惠鳳.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지식산업사, 2003.

_____.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지식산업사, 2006.

_____. 「한국목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崔美姸. “조선시대 『救急方』과 『諺解救急方』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최미현. “『諺解胎產集要』와 『東醫寶鑑』의 원문 대조 연구(1).” 『우리말연구』 25집(200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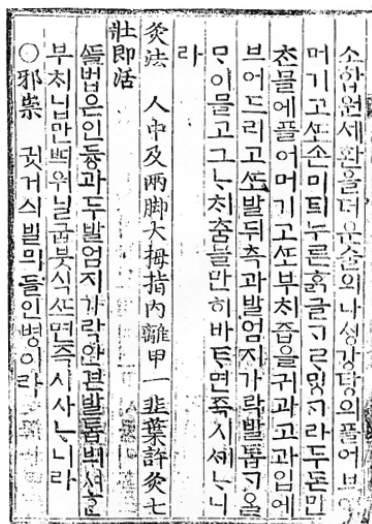
_____. “『胎產要錄』과 『諺解胎產集要』의 관련성 고찰.” 『한말연구』 제26호(2010).

洪奉漢 外. 「增補文獻備考」職官考9. 內醫院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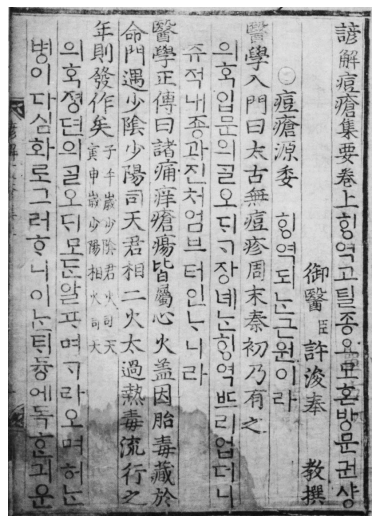
「栖碧外史海外菟佚本-瘡疹集」. 亞細亞文化社, 1997.

「瘡疹集」卷上. 任元濬瘡疹集序(世祖2, 1456).

<부 록>



<그림 1> 개인소장의 「언해구급방」 원간본 상권



<그림 2-1> 내의원자본 「언해두창집요」 권상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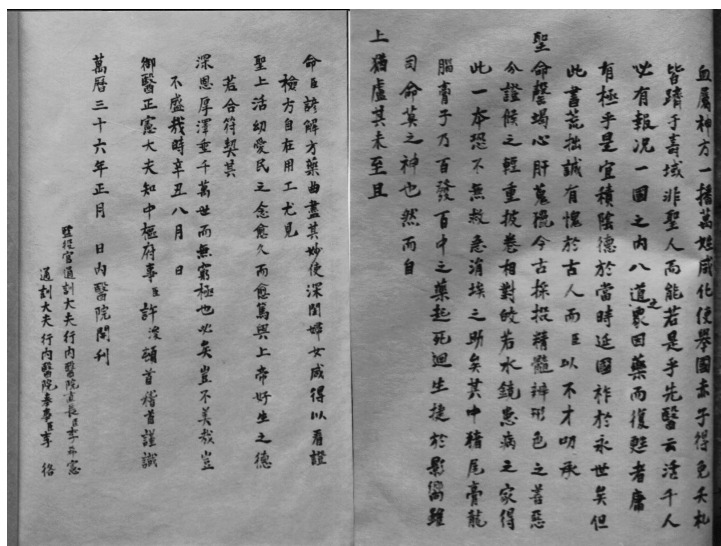
<그림 2-2> 내의원자본 「언해두창집요」 내용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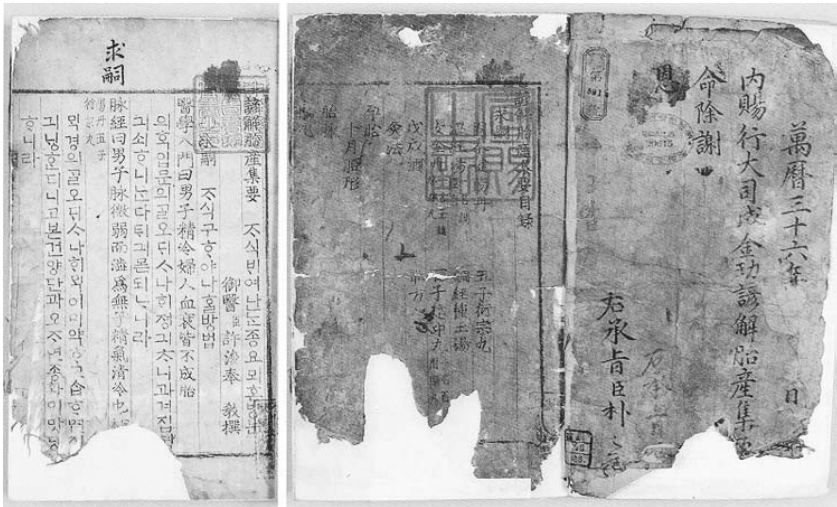
<그림 2-3> 내의원자본 「언해두창집요」 권말 발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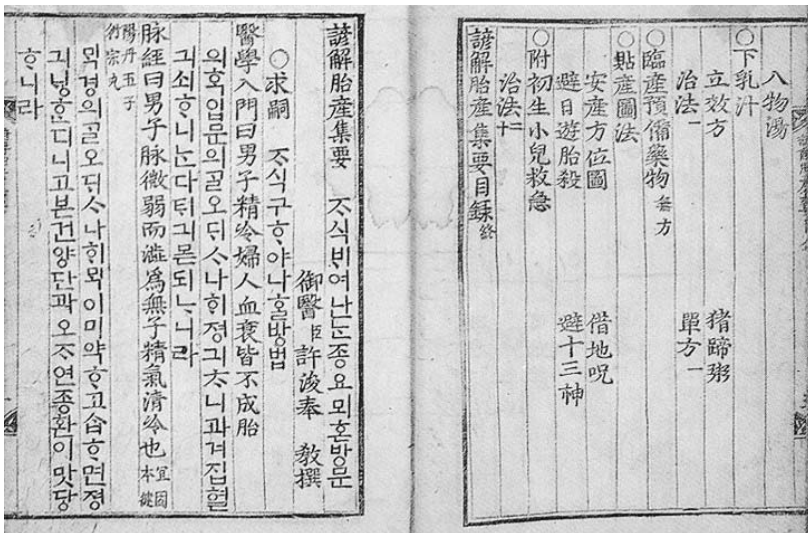
<그림 2-4> 내의원자본 「안해두창집요」 발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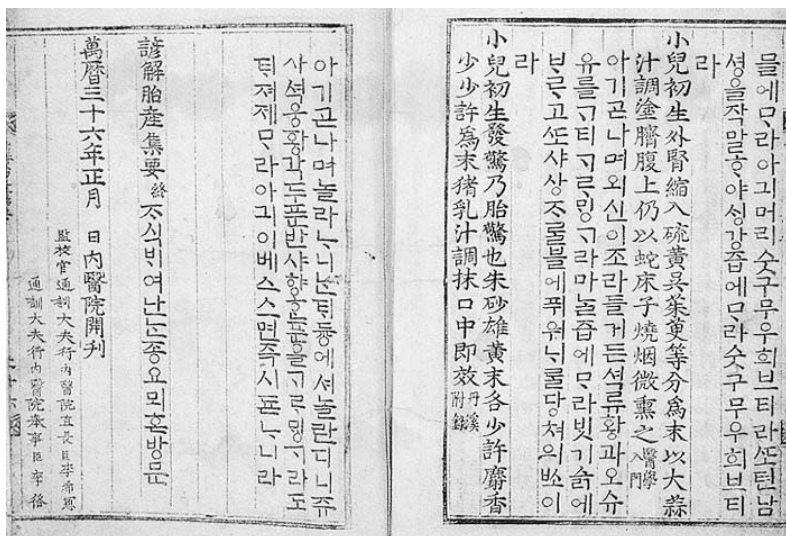
<그림 2-5> 내의원자본 「안해두창집요」 발문 3 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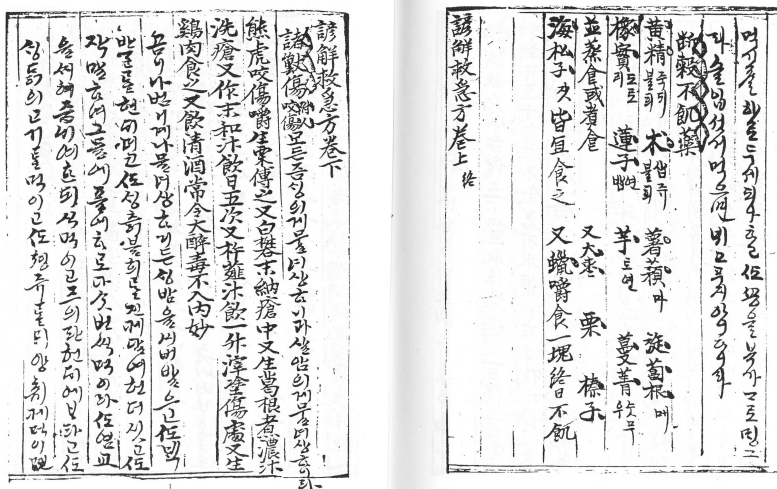
<그림 3-1> 한독의약박물관 「언해태산집요」 보물1088호 내사기 및 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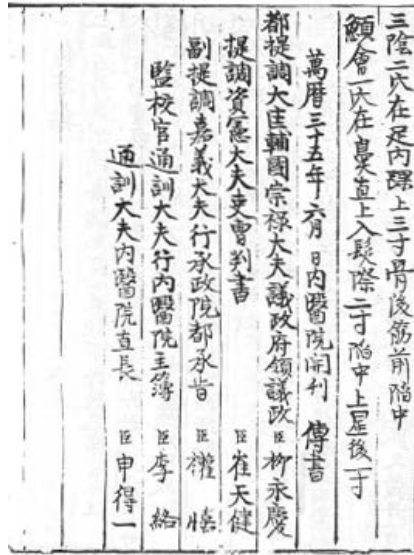
<그림 3-2> 한독의약박물관 「언해태산집요」 보물1088호 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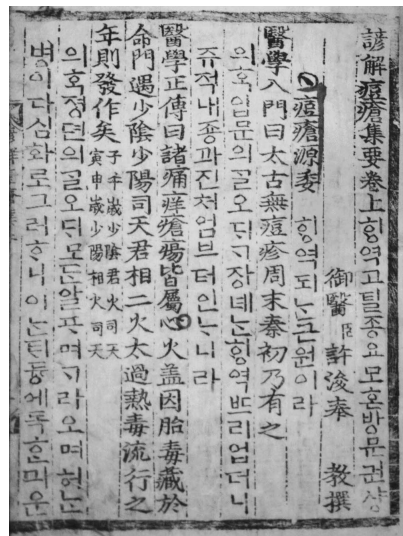
<그림 3-3> 한독의약박물관 「언해태산집요」 보물1088호 간기



<그림 4-1> 「언해구급방」 전사본 권상, 권하 부분



<그림 4-2> 「언해구급방」 전사본 권말 간기 부분



<그림 5-1> 서울대 소장 「언해두창집요」 번각본(288009)



<그림 5-2> 서울대 소장 「언해두창집요」 번각본 발문 1(288009)



<그림 5-3> 서울대 소장 「언해두창집요」 번각본 발문 2(288009)



<그림 5-4> 서울대 소장 「언해두창집요」 번각본 발문 3(288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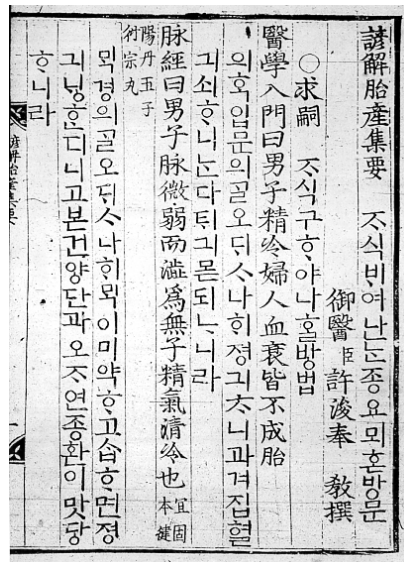
<그림 6> 연세대 소장 「언해두창집요」 권상·권하 전면(619.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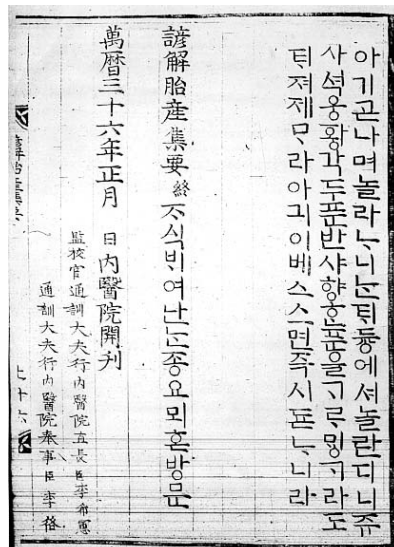
<그림 7> 이화여대 소장의 「언해두창집요」 번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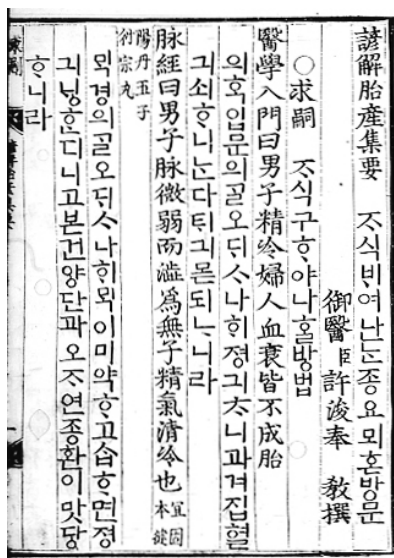
<그림 8> 한독의학박물관 소장의 「언해두창집요」 번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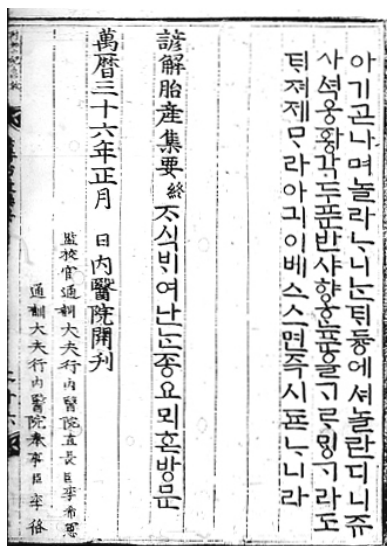
<그림 9-1> 규장각 소장 「언해태산집요」 목판본 권수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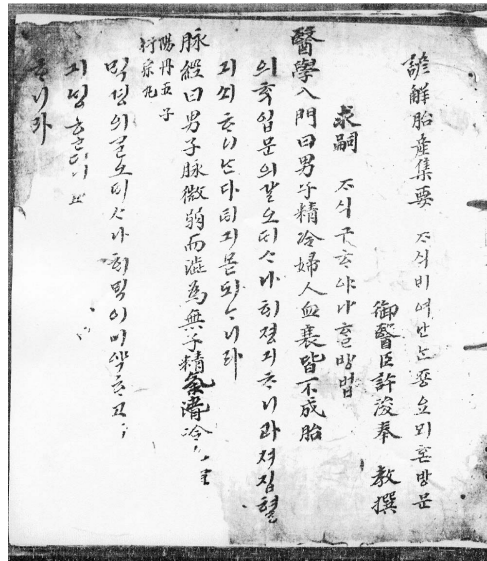
<그림 9-2> 규장각 소장 「언해태산집요」 목판본 간기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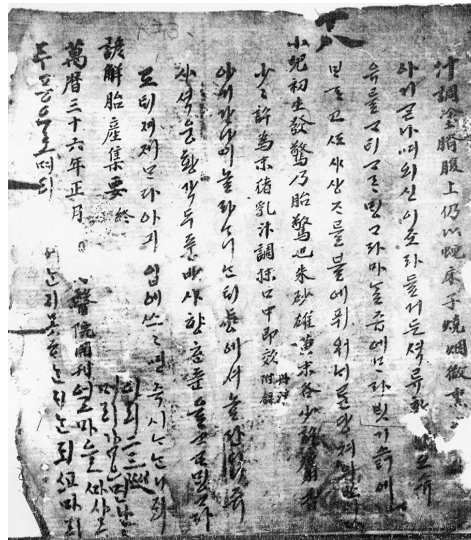
<그림 10-1> 프랑스동양언어문화학교 「언해태산집요」 목판본 권수 부분



<그림 10-2> 프랑스동양언어문화학교 「언해태산집요」 목판본 간기 부분



<그림 11-1> 규장각 소장 「언해태산집요」 필사본 권수



<그림 11-2> 규장각 소장 「언해태산집요」 필사본 권말 간기

